

Circle of Caring
아낌의 돌레
John 17:20-23
Sharon E. Watkins
General Assembly 2009

일년전 5 월에 콩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지리적으로 적도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 그곳에서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사실 남쪽인 곳었습니다. 9 명의 제자회인들이 콩고의 므반다카(Mbandaka) 지역에 위치한 제자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의 제자회 인들과 므반다카 제자회인들과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의 이루고 서로 가까워 지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토요일에 통나무로 만든 카누 배에 올라탔습니다(두개의 커다란 카누를 끈으로 동여맨뒤 배를 움직이기 위한 모터가 밖으로 달려있는 배였는데, 우리가 겨우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을만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목적은? 강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제자회 교회들을 들르기 위해서 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할 때 마다 그곳의 교회 사람들은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노래하고 춤을 쳤습니다. 배에서 내려 커다란 장대를 타고 올라가서 그위에 지워진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를 버티는 장대들은 물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방문한 마을에서는 오카일렐레헤 목사님, 사모님인 줄리엔이 그녀의 손에 아기 헤낙을 들고 맞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지방 지방회 책임자인 롬베 목사님의 인도 하에 헤낙의 헌아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헌아식 중 파트너십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롬베 목사님과 상응하는 미국인 릭 스프레스 목사님께 인도를 부탁해서 서로의 존중하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릭은 그 아름다운 아기를 팔에 안고 한 손을 머리에 얹고 우리에게 익숙한 헌아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고귀한 생명에 감사드리고, 그 아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가족에 대한 감사 기도, 그리고 그 아기가 자랄때 교회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게 지원하여서 언젠가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약속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국 인디애나에서 온 9 명의 제자회 인들이 헤낙의 부모와 그 교회 식구들과 교회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가족이지만 가족은 맞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는 그자리에 있던 아기의 육체적 부모님 만의 아들이 아닙니다. 콩고만의 아들도 아닙니다. 전체 인간 가족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입니다.

바로 이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목격하는 깊은 영적 진리에 대한 경이로움 가운데 이 총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것이 풍요롭고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 지으심을 받고 그곳을 관리 하던 단 한 부모에서 갈라져 왔읍니다.

여러분 중 어떤분들은 저와 같이 사회 경제학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학에서는 세상은 결핍의 성질을 띄는데, 이 결핍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부터 창조되었고, 풍요롭고, 충만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증식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었습니다.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회 경제학의 근본적인 전제는“결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풍요로움”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아이들을 먹이고, 모든 아이를 교육 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거할 집을 제공하는데 풍요롭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총회가 몇번 더 일어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이전에 - 우리는 말라리아 같은 병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전멸 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보다 더 풍요롭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모두에게 건강 관리를 하기에 풍요롭게 있습니다.

결핍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움 입니까? 사회 경제학자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과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이상”을 갖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으로 부터 “우리는 가난했어도 가난한지 모르고 살아왔다”같은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혈연으로, 친밀함으로, 문화로, 직장으로 이뤄진 가족의 둘레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보다 몇배로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보다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가족 안에서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 부, 행복의 경험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우리가 인디애나에 태어났던지, 인디아에 태어났던지, 샌 프란시스코, 상 파울로, 시카고, 중국, 어디에서 태어났던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콩고의 아이인 헤녹도 우리의 아이입니다. 이 한 가족의 둘레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 보다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

바로 몇분 전에 읽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해독이 우리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위층에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12명 중 11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나게 될 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때 밝게 비취질“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반하기 바로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이뤄져야 할 일들에 대한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문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의 한 줄 한 줄이 아낌의 돌레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부터, 제자들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에게, 바울과 다른 전도자들이 배가 난파하는 것, 두들겨 맞는것, 감옥에 갇히는것을 무릅쓰고 나가 전도할 때 소 아시아와, 북 아프리카 그리고 인디아, 로마 제국의 구석 구석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곳에서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로 아낌의 돌레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까지, 그리고 그보다 더욱 크게 아낌의 돌레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 모두가 그 돌레 안에 하나가 되야 할 것입니다. 왜냐 고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해독이 우리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질문은: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니다.

글쎄요... 그 질문에 대답을 위해 이제 교회가 이제 뛰어 들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라는 질문의 대한 반응에 바로 교회에 빛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은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이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얼마전 입니다.

게세마네는 현재 동 예루살렘 위치한 담이 쳐있는 동산으로 고대전, 아주 고대전으로 부터 내려오는 울퉁 불퉁한 올리브 나무가 둘러싸여 동산의 경로를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옆에는 높은 천장에 차가운 돌벽으로 지어진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반 투명한 벽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안에 서있노라면, 밖으로부터 태양 빛이 안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것 같이 보이나 사실 반 투명한 보라색, 담자색, 상아색, 설화 석고(아라베스터)색이 벽을 통해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아라베스터 빛이나는 도시가 그렇게 비추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와 적합하게, 잘 들어맞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천들은 폐쇄된, 개인적인, 불투명한 회색 벽들로 정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발산하는 투명한 아낌의 돌레로 정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빛, 바로 그 어두움이 삼키지 못했던 빛이 우리안에서 빛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영광 빛이 우리를 삶을 통해 비춰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네!”라고 대답합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가 선언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순수한 관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콩고 강에 사람들을 아낌의 돌레 안으로 포함 시키는, 바로 이 세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 우리라는 us 와 그들이라는 them 의 차이가 없음을 받아들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과 당신의 가족, 이 동네와 저 동네. 하나의 아낌의 법위의 기능을 다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의 인간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천대에 거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밝게 빛나는 영광의 빛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원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한 식구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하나됨을 재 발견하고 이를 이룩하기 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수가 있지만 하나되는, 다양하지만 분리되지 않은 하나됨을 원합니다.

끝이 없이 확장해 가는 아낌의 돌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눔으로 세상이 만들어낸 경계와 장애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출 수 있게 합니다. 서로 서로를 한 가족과 같이 아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불은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로 존재합니다.” 초교파 운동인 에밀 브루너 Emil Brunner 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합이 우리의 북극성이 되게해야 합니다.” 라고

바튼 스톤 Barton Stone 은 말합니다. 집중된 북극성의 불빛, 그리스도인들의 화합으로 밝게 비추는 불빛. 이 불빛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고, 이 불빛은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아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까지 서로에게 연약한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낌의 돌레를 우리의 문앞에서 확장해서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과 진정한 한 식구가 된다면, 아무런 연약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코페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발견한 것과 같이 온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면, 우주에 중심이 단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그런 지구상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고 그곳으로 부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터 우리의 아낌의 돌레가 확장해 나갑니다.

헤녹의 마을에 있는 교회에 서있을때, 콩고 강 옆으로, 우리는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열대 숲, 지구의 허파에 서있었습니다. 산소를 내뿜는 모든 나무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산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헤녹과 콩고 지역의 제자회 인들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지구에 삶을 제공해 주는 부분의 청지기로 살아삽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다 더 좋은 환경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거대한 열대 숲을 지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로인해 열대 밀림 지역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원이 결핍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에너지 사용 버릇에 대해 최근에 발견한게 있습니다. 저는 출장이 잦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이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자동차 세대 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의 다른 집들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만약 헤녹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에너지 낭비벽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얼마나 연약해 져야 하겠습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덥게 지내야하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야 하나요? 얼마나 뜨거운 물을 적게 쓰고, 전자 제품들을 쓰지 말아야 합니까? 헤녹이 처한 현실의 얼마 만큼을 제가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한 식구니까, 아낌의 돌레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왜냐하면 헤녹이 나보다 절대로 더 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삶의 풍요로움을 갖을 자격이 있으니까,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움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헤녹이 처한 환경이 우리의 환경으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녹이 처한 삶의 부족함이 사회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이 세상의 결핍에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창세기가 말해주는 풍요로움의 시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던지 헤녹의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저녁 6 시가 되도록 먹을것이 없고 그들의 부모들의 손의 뼈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고 겨우 한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만약 헤녹이 나의 아이였으면, 그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지구 반대편 나와 상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헤녹이 나의 어린 동생이라면 내가 상관 해야되는 일 입니다. 그리고 헤녹은 나의 어린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러분의 어린 동생입니다. 이제 제가 후저(인디애나 사람 칭함)로 살아가는데 콩고 강의 제자회인들의 삶과 엄청나게 결속된 삶을 살아 갑니다. 그래서 콩고 인들이 그들의 밀림을 보살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 미국인들이 행복한 삶의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스타인이 반 백년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온 우주라로 부르는 우주 전체의 한 부분 입니다....우리는 우리자신만의 삶을 경험합니다...마치 우리가 그 나머지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에 마치 시각 장애같이. 그 장애는 우리에게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들을 향한 정에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자연의 전체의 아름다움을 감싸안고 받아 들이기 위해 우리의 자비의 둘레를 넓힘으로 그러한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아인스타인은 다음과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인류가 살아남기 원한다면 우리는 현저히 새로운 생각을 도입해야 합니다.”

교회여!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은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때 부터 남기신 자국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서로 아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비춰지는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가 되자는 비전 속에 있고, 우리가 조각이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하고 국제적으로 아낌의 둘레를 확장시키려는 비전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벌써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저 멀리 있는 보다 큰 둘레 안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한 식구인 사람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그 초점을 좀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볼려고 합니다.

오늘 밤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특히 저와 같은 세대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사나 보고에 의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지구의 보전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낌의 돌레에 관하여 말씀 드릴때 해복에 대한 생각 뿐 만 아니라 몇 분 뒤에 이 강단에 올라와 다음 순서를 맡을 아이들, 이번 여름에 청소년 캠프에 참가할 아이들, 설교 시간에 안절부절 못하며 집중을 방해하는 개구장이 아이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아보지 못한 옆집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밤 여러분앞에 여러분이 한번도 보지 못한 해복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게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제자회 인들은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들이 살아남는 것은 물론 이 세상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에게 선생이요, 선지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 낸 아낌의 돌레 안에 들어가야만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남는 것 뿐 아니라 이 지구의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 온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미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주 위험하면서도 약속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에 잠겨 있으면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서도 우리는 서로 아낌의 돌레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해낙의 헌아식이 끝나자, 인디애나의 대표단과 그곳에 주최인들이 해질 무렵 다시 강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폭 빠져 있었습니다. 카누에는 조용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서로 말을 멈췄습니다. 눈앞의 장관 앞에서 아무런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적도의 해는 정말 빨리 집니다. 그리고 곧장 어두움이 깔립니다. 어우워졌습니다.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전기가 없는 정글 속 강옆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함이 느껴졌습니다.

곧 별이 떴습니다. 아주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가장 찬란한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의 현란함에 멀리 떨어져서, 전자 편지와, 밤 늦은 시간 월 마트에 시장보러 가는 일들과 먼 이야기였습니다. 곧 우리는 북극성이 아니라 남 십자성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들은 반짝 반짝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밤의 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뱃사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카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역류해서 올라가면서, 그날의 여정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때 방문한 마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횃불에 불을 켜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먼저 만났었던 제자회 교인들이 통통배 소리를 들으며 동네에 다가오는 우리를 맞이해 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행복했던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을 마다 제자회 교인들은 강가로 나와 잘 가라고 마중해주었던 것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밝게 비추는 별, 사람들의 목소리, 물결을 가르며 가는 배소리.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서로 하나됨, 인간 가족으로 하나가 된 세상, 모두에게 풍요로운 생활, 그리고 생명의 삶과 피를 통해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비전 속에 평화가 잔잔히 찾아 왔습니다.

그날밤에는 콩고의 제자회 인들로 인해 우리의 아픔의 돌레가 더 더욱 깊어지면서 남십자성이 우리의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부르는 그들의 노래는 예수님의 기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동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오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서로간에 화해하라고, 우리를 들어서 열방을 회복하시라고.

그날에는 헤녹의 헌아식을 통해 주님의 삶과 피를 통한 역사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입니다.

교회여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